



'SEK 2005' IT 희망 쫓다

역대 최대 규모 · 다양한 부대 행사 '인기'

국내의 전자,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의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IT 전시회 'SEK 2005'가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주최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SEK 역대 최대 규모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대 행사가 펼쳐지면서 관람객들의 호응도 높아 성공적 행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글 신승철 기자 · 사진 이혜성 기자

국내 최대의 IT 전시회 'SEK 2005'가 지난달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돼 나흘간의 일정을 마쳤다. 이번 전시회는 어느 해보다도 풍성한 제품과 신기술이 출품돼 관람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최근 IT분야 전시회의 인기가 시들해졌음에도 규모와 내용 면에서 역대 최고 수준을 자랑했다. 209개 업체가 600개 부스(3,300평 규모)를 열었고, 메인 행사인 전시회와는 별도로 모바일 페스티벌, u-코리아 비전 컨퍼런스, IT 오픈투니티 등 다양한 특별 행사가 펼쳐져 분위기를 한껏 돋웠다.

국내외 IT 인사 대거 참석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 대표 IT 전시회라는 명성에 걸맞

게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등 국내 IT산업 관련부처의 수장이 모두 참석했다. 또 미국·영국·싱가포르·일본·태국 등에서 80여명의 IT 전문기자가 참석, 열띤 취재경쟁을 펼치기도 했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특별 강연을 통해 '한국정부의 IT839 전략'을 소개하며 이번 행사의 개막을 알렸다. 그는 "한국은 통신인프라 2위, 브로드밴드 가입자 1위, 통신비 지출 2위의 국가로 미니홈피 '싸이월드' 가입자가 전국민의 4분의 1에 달하고 온라인게임 '카트라이더' 가입자가 1,000만명에 달한다"면서 "결국 한국은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시장과 이상적인 테스트베드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경쟁국들을 앞설 수 있는 IT839 전략 수립의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창곤 한국전산원장과 이용경 KT 사장의 기조 연설이 이어졌다. 김창곤 한국전산원장은 “한국은 e코리아에서 u코리아로 넘어가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면서 “TT839 전략과 각종 핵심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정부(u거버먼트), 개인·가정(u홈), 기업(u커머스), 사회(u소사이어티) 모든 분야의 생활문화혁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u코리아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용경 KT 사장은 ‘KT의 u사회 전략’이라는 제목의 기조 연설을 통해 “기존 차량 산업과 IT·RFID/USN 기술이 융합된 u자동차 모델, 기존 의료분야와 IT·RFID/USN·BT·NT가 융합된 u병원 모델, 기존 IT 산업과 NT·BT가 접목된 나노 IT 이외에도 홈 로봇, 네트워크 PC, 바이오 IT 등 다양한 사업모델 출현이 예상된다”면서 “산업 간 융합 트렌드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BM)들이 IT를 기반으로 NT·BT 등과 융합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통신사업자가 가질 수 있는 또하나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해외에서도 빅 바이어가 방문했는데, 23일에는 KOTRA 초청으로 국내 IT기술에 관심이 높은 일본 ‘키타큐슈 IT 참관단’이 전시장을 찾았다. 또 정보문화진흥원의 초청으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예멘·파키스탄·엘살바도르·과테말라·도미니카·멕시코 등 8개국의 VIP들이 이번 전시회를 관람했다.

‘엄지족 다 모여라’… 모바일 제품 인기

이번 전시회의 가장 큰 볼거리는 역시 ‘컨버전스 시대’를 겨냥한 다양한 퍼스널 단말기. 휴대폰에서 MP3, 데스크톱과 노트북PC, 주변기기 제품까지 빠짐없이 선보였다. 통신과 방송 융합의 총아로 떠오른 위성 DMB 서비스·단말기·솔루션도 대거 출품됐다.

KT는 ‘유비쿼터스 라이프 파트너 KT’를 모토로 스마트 홈·유비쿼터스·컨버전스·이노베이션 월드 등 4개 테마관을 운영했다. 네스팟 스윙, 원폰 등 유무선 결합 단말 서비스를 시연했으며, 네트워크 기반의 지능형 로봇도 선보였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DMB 노트북·게임폰·모바일 프린터 등을 출품하며 자존심 대결을 벌였다.

LG전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360도 회전이 가능한 폴더 디자인의 위성 DMB폰과 세계 최초로 100만 폴리곤(3차원 영상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급 그래픽 가속 칩을 탑재해 3D게임을 즐길 수 있는 ‘리얼 3D 게임폰’을 선보였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핸드폰·노트북·모바일 프린터 등 다양한 모바일 제품에 승부수를 던졌다. 와이셔츠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부담이 없을 정도의 블루투스 기반 ‘초슬림 폰’을 행사장 전면에 배치했으며, 지상파 DMB 수신기가 내장된 노트북과 핸드폰·디지털카메라를 통해 찍은 사진을 바로 인화할 수 있는 ‘모바일 프린터’를 내세워 눈길



1



2

1 지난달 22일 SEK 2005를 찾은 오명 부총리·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박성득 전자신문사 사장·김창곤 한국전산원장 등이 서영길 티유미디어 사장으로 부터 위성DMB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 SEK2005에 출품된 LG전자 위성DMB폰 ‘LG-SB120’을 도우미가 들어보이고 있다.

3 이회범 산업자원부 장관이 레인콤 아이리버 부스를 방문해 ‘아이리버 U10’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4 네오위즈 온라인게임 ‘요구르팅’의 캐릭터들로 분장한 도우미들이 아이리버 부스에서 춤추고 있다.



3



4



5 마이크로소프트는 미디어센터 PC존·오피스존·이벤트존·닷컴월드존 등 4개의 테마관을 운영했다.
 6 이번 전시회에는 개인용 패키지 소프트웨어에서 기업용 솔루션까지 60여종의 국산 소프트웨어가 출품됐다. 사진은 한글과컴퓨터의 부스.
 7 삼성전자는 핸드폰·노트북·모바일 프린터 등 다양한 모바일 제품에 승부수를 던졌다.



을 끌었다.

무려 50개 부스를 임대한 레인콤은 H·T·N 시리즈를 비롯한 'D10' 등 MP3 신제품을 대거 출품했으며, 벤처기업인 큐리오는 카메라·캠코더·MP3에 동영상 기능까지 탑재한 컨버전스 제품 '캠피리'를 내놓고 수요몰이에 나섰다.

퀵컴은 CDMA 원천 기술 업체답게 칩세트 로드맵·브루 등 칩과 솔루션을 선보이며 모바일 시대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우심시스템은 모바일 프린터와 패널 프린터를, 퓨전소프트는 윈도 기반 스마트폰과 개발 보드 등을 선보였다.

신지소프트가 개발한 2D·3D게임 솔루션인 '지넥스(GNEX)'와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모바일게임도 이번 행사의 중심을 차지했다. 블루인터랙티브의 '루미큐브', 옛데이터의 '신포켓야구', 일렉트릭아일랜드의 '열혈강호 무림쟁패', 컴투스의 '바이러스', 메타미디어의 '길티기어' 등 신지소프트의 지넥스를 적용한 게임들이 시연됐다.

SEK에서 처음 시도된 모바일 이용자들의 축제 '모바일 페스티벌(MoFes)'은 신세대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모바일 페스티벌은 전시관 내에서 진행되는 본 행사와는 달리 전시장 정문 왼쪽에 있는 휴식공간(프리링션)을 활용,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오픈 이벤트로 꾸며져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베스트 모빌리안 선발대회·모바일 퀴즈 대항전·모바일 게임대

전·最古 휴대폰을 찾아라·3D게임 페스티벌·힙합댄스쇼 등 거의 대부분의 부대 행사에 모터즌들의 몰렸으며, '문자왕을 찾아라'라는 행사에 참여한 관람객들은 온몸을 이용해 문자를 보내 보는데 즐거워했다.

60여종 국산SW 출품... 잠재력 과시

SEK 2005에는 IT시장을 주도할 소프트웨어도 한자리에 모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 시작하세요'라는 주제로 미디어센터 PC존·오피스존·이벤트존·닷컴월드존 등 4개의 테마관을 운영했으며, 한글과컴퓨터는 자사의 대표적인 문서 관련 솔루션인 '한컴 오피스 2005'를 전시하고 이 솔루션의 강점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개인용 패키지 소프트웨어에서 기업용 솔루션까지 60여종의 국산 소프트웨어가 출품돼 소프트웨어 강국의 잠재력을 보여줬다. 또 모바일과 웹 솔루션을 비롯해 기존 소프트웨어의 틀을 깨는 신개념 소프트웨어가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파피루스는 모든 종류의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에서 PDF문서를 생성,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PDF 프로 v2.6'을 출품하며 어도비에 도전장을 던졌다. 이 제품은 자체 개발한 PDF 엔진을 통해 외산 제품과 비교해 5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빠르게 PDF 파일을 생성할 수 있고 생성된 PDF 파일의 압축률도 10% 이상 효율적이다.



8 SEK 2005는 역대 최대 규모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대 행사가 펼쳐져 성공적 행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9 이번 전시회는 퀴즈와 댄스, 칵테일, 음악, 실시간 영상 등을 제공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져 관람객들의 호응이 높았다.

엘엔아이소프트는 'B2B 비즈니스 브리지'를 주제로 번역 전문 업무용 솔루션과 PDF 번역과 메신저 번역 서비스를 시연했다.

라이브에이비씨는 '라이브ABC'라는 양방향 3D 영어 회화백과를 선보여 교육 관련 솔루션에 관심이 많은 관람객들의 주목을 끌었고, 만도맵앤소프트는 자사의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와 관련 장비들을 다수 출품했다.

마이스터는 대한민국 전역에 걸친 상세 교통지도는 물론이고 전화번호, 부동산 매매 정보와 같은 다양한 부가정보를 제공하는 국산 교통정보 솔루션인 '홀씨'를 전시했고, 온누리인포텍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업무용 메신저 '액티브포스트'를 내놓았다. 원에버소프트도 '이미지라이브'라는 자바 그래픽웹에디터를 전시하는 등 다양한 영역의 소프트웨어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소개됐다.

한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소프트타운관'을 운영, 전국 7개 소프트웨어타운과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지원 업체 중 가능성이 있는 50여개 기업의 대표 제품을 전시했다. 또, 정보산업연합회는 '신소프트웨어 상품대상'을 수상했던 업체가 참여하는 '신소프트웨어 상품관'을 마련했다.

IT행사 新트렌드 제시... 칵테일까지 등장

SEK 2005에서는 신제품과 기술 설명과 시연으로 일관되던 IT전시장의 모습을 180도 바꿔 놓았다. 새로운 방식의 퀴즈와 댄스, 칵테일, 음악, 실시간 영상 등으로 관객의 환호와 재미를 주는 등 라이브 공연장을 방불케 해 새로운 IT전시의 미래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더욱이 이런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체험 중심의 전시·공연 문화를 앞당기고 제품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제품과 기업의 긍정적인 인지도를 확보해 관람객과 주최측 모두 만족하는 분위기였다.

KT는 인터넷을 이용하며 시원한 음료를 즐길 수 있는 U카페를 운영

해 관람객들이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또 한국 맥아피는 패스트푸드점에서나 볼 수 있는 탄산음료공급기를 설치해 관람객들의 반응이 좋았다.

레인콤은 전문 바텐더 2명을 초청해 부스 내 마련된 바에서 신나는 음악과 함께 칵테일 파티를 열었고 고호와 피카소 등 유명 화가들의 명작으로 전시관 한 면을 꾸몄다. 특히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피리부는 소년' 그림에서 바로 빠져나온 듯한 인간 마케팅이 아이리버의 신제품을 들고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기술과 문화의 만남을 표현했다.

지난해 개봉된 디즈니 만화영화 인크레더블맨과 KT의 원폰서비스의 모델 텔런트 박건형씨가 등장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켈킴은 모바일 플랫폼 브루에 탑재한 3D게임 '인크레더블' 홍보를 위해 인크레더블과 닮은 모델을 섭외하는 등 일반인들에게 기술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화려한 댄스로 KT의 원폰서비스를 광고하고 있는 박건형씨는 관람객들의 카메라폰 세례를 받으며 이어지는 사인 공세에 즐거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정보통신윤리관, 성남시관, IT839테마파크관 등 다양한 테마관도 구성, 단순한 IT기술 전시가 아닌 IT문화 전시회라는 평을 받았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보통신윤리관에서는 위원회가 자체 개발한 음란스팸차단 SW '음란스팸잡이'와 내용선별SW를 소개했다. 음란스팸잡이는 전자우편으로 발송되는 음란성 스팸메일을 완전히 차단하는 솔루션이다.

이러한 다양성 때문에 SEK 2005 전시장에서는 IT전시회로서는 보기도 못한 '암표상 주의보'까지 내려졌다는 후문이다. 주최측이 나눠준 초청장을 관람객에게 헐값에 파는 업체조차 등장했다는 것. 또 행사 마지막날인 25일에는 무료로 입장시켜 호평을 받았다. ●